

출장 결과 보고서

복명자: 신윤정 연구위원

1. 기간: 2017년 6월 11일 ~ 2017년 6월 18일

2. 목적: 동질혼·이질혼 부부 추이 및 출산력 분석 연구 자문과 정책 방향 논의

3 출장지: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소르본 대학교, OECD

4. 주요 내용

- 차트 10: 동질혼 이질혼 부부를 정의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교육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 초졸 미만, 대졸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경우 동질혼이 과대 추정되고 강혼과 승혼이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음
- 차트 15: 남녀 간 학력 수준이 어느 코호트 시점에서 동등하게 되었는지 살펴 봐야 함
- 차트 16: 남성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며, 여성은 반대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으로 남아 있는 가능성이 큼. 초졸 미만 여성은 과거에는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낮았으나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는 취약 계층 여성들이 결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음
- 차트 16, 17: 초졸미만, 중졸 미만 샘플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샘플 (평균 수준)의 그래프를 추가할 것
- 차트 19: 기대치 빈도와 관찰된 빈도 그리고 “사회적 선호도” 격차표 분석 결과를 보면 동질혼에 대한 선호도는 2000년까지 증가되다가 이후에 감소, 승혼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적으로 감소, 강혼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 그 수준은 낮으나 약간의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차트 30: 전체, 동혼, 승혼, 강혼 간의 연령차이 누적 분포도를 보다 면밀하게 비교해야 할 것임
- 차트 31: 부부 간 연령 차이 평균은 감소하고 있으나 연령 차이의 표준 편차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음. 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평균에서 벗어 나는 정도가 일정하게 유지. 배우자 간 연령 차이 규범이 존재?
- 차트 32: 동질혼, 승혼, 강혼 부부의 연령 차이가 과거에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컸으나 2010년와서 전체 샘플과 거의 유사하게 되고 있음. 강혼의 경우 과거에는 남편의 연령이 높았으나 (교육 수준이 낮고 연령도 높은 남성) 최근 들어 평균 집단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강혼의 유형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 동혼과 승혼의 경우 연령 차이가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평균 보다 컸으나, 2010년으로 와서 승혼은 평균과 유사해 지고 동혼도 평균과 유사하게 하거나 더 낮아지는 추세. 강혼은 과거보다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더 커졌음
- 차트 36~44: 혼인 유형별 여성의 출산아 수 경향이 전체 여성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수가 아니라 여성이 평생동안 낳은 출산아 수이기 때문일 수도 있음. 현재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전혼 자녀 수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것임